

부모님께 내가 일하는 병원 보여드리며 가슴 벅차



강 지 원
좋은문화병원 응급실 간호사

9월 그 즈음,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곤 했다. 고3 이맘때는 간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었고, 작년의 이 시기엔 지금의 내 자리에 서고 싶어 국가시험 공부와 면접 등으로 발버둥치는 날들을 보냈다. 그렇게 간호사 면허를 따고 꿈을 이룸과 동시에 입상에 들어서기 전 태움이라

는 문화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 헌구석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 두려움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걱정으로 이어졌다. 2019년 2월 25일, 내가 첫 출근하기 전, 부모님의 걱정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간호사의 조직문화에 합류해 하진 않을까, 첫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응급실이라는 곳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이 일할 선생님들은 어떤 분일까 등. 부모님께 걱정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매일 하던 전화를 하루만 빼놓아도 걱정이었고, 전화가 올 때마다 내가 울고 있던 않을까 맘을 졸이셨다고, 내가 어느 정도 일에 적응했을 때 웃으며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참에 병원에서 '부모님 초청행사'를 한다는 말을 전해드렸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 16년간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모님을 모셔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심지어 나의 직장으로 초대해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내 직장 상사와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일터를 소개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이었다. 부모님과 나 모두 의아해했다.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후 마음은 정말이지 180도 바뀌었다. 내가 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 수 있었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응급실에도 둘러 조직이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더욱 좋았던 것은 내가 의지하며 일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님께 소개할 수 있어서 마음이 벅찼다. 응급실 간호사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과 쏟았던 갖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환자의 작은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고 환자의 입장에 서서 공감할 것이다. 더불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프리셉터 선생님과 함께 한걸음씩 성장



임 중 성
경희의료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병원에서 발령이 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설렘과 두려움을 갖고 전화를 받았고, 첫 부서가 인공신장실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야근이 없는 부서, 처음 간호사를 시작하게 된 내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다. 주변 친구들과 동기가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첫 출근,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고난의 시작이었다. 환자분들이 신입간호사인 나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혈액투석환자들에게는 환관이 생명줄과 같다 보니 낯선 사람이 자신의 혈관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프리셉터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인공신장실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다. 환자분들과 교감을 하고 인사를 나누며 일을 어느 정도 알아갈 무렵,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 누가 옆에서 봐주지 않고 혼자 일을 한다는 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인공신장실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라 힘들었다. 또한 예민한 환자분들은 내가 다가가는 것조차 꺼리고 다른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모든 시선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서울이라는 낯선 곳과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환자들과의 거리감은 다음날 출근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는 선생님들과 환자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환자분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줬다. 업무에 적응이 될 무렵, 때론 누나처럼 때론 어머니처럼 돌봐주시던 프리셉터 선생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았기에 슬펐고 막막했다. 한편으로는 프리셉터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후배 신입간호사가 2명이 더 들어왔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신입간호사들을 보며 나의 처음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됐다.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가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새로 들어온 신입간호사들을 잘 챙기고 도와주며,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서툴렀던 첫 걸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환자안전, 전 직원이 함께 행동해야



박 지 현
한길안과병원 적정진료관리실 QPS파트장

임상에서 3년 정도 일하다 육아 등의 이유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임상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고, 환자의 치료를 돕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 느끼는 보람이 그리웠다. 한길안과병원 내과외래로 자리를 옮겼다. 오랜만에 돌아온 병원 현장은 조금 낯설고 어색했다. 환자안전에 대한 절차가 강화됐고,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불편함이 환자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를 익히고

생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업무의 불편함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치 전 손위생을 하고 있는지 등 환자 안전 측면에서 생각하니 많은 것을 수정하고 배워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가며 개선하는 것이어서 흥미롭고 재밌었다. 이렇게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QI전담자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2주기 인증기준에 QI전담자를 뒀어 한다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서 병원은 기존대로 QI전담자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입 때부터 대해 QI활동을 계속해왔고 좋아했던 터라 제안을 덩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QI전담 업무는 생각처럼 즐겁지만은 않았다. 인증조사 항목을 익히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한 부서에서 QI활동을 하던 때처럼 몇 명만 짚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우선 리더의 협조가 필요했고,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이해시켜야 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전 직원이 공유하고, 환자안전에 대해 공통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해결해야만 했

다. QI전담자로 일한지 5년이 넘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개선해야 할 것들이 눈에 너무 잘 보여 빨리 개선해야만 할 것 같아 직원들을 뒤달리며 전진공급했다. 그러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위해 필요한 일은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일으므로 조금씩 부딪혀 나가다 보면 마침내 개선되고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유를 찾았다. 아울러 개선을 위한 QI전담자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도 알게 됐다. 들여다보면 임상에서 환자를 통해 보람을 찾고자 했던 목표는 이룬 것 같다. 다만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전하게 퇴원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나와 동료들의 노력이 모여 '우리 병원은 안전한 병원'이라는 믿음으로 변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QI전담자로서 '안전한 병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배우고 고민할 것이다.

30번째 헌혈을 하게 되기까지



임 세 영
장문위튼병원 간호과장

29번째 헌혈을 한 이후 헌혈의 집에서 다음번에 헌혈하면 헌혈유공장(은장)을 수상하게 되니 꼭 다시 헌혈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는 그런 것만 주셔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었다. 특별한 생각 없이 30번째 헌혈을 하러 갔더니 오늘 유공장을 꼭 받아가라고 타박 아닌 타박을 하기에 췌겨서 가져왔다. 사실 남편이 신혼 초에 30번째 헌혈한 기념으로 유공장을 받아왔을 때 방지했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내심 민

망하기도 했다. 상을 갖고 와 집에서 열어보니 그동안 헌혈했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생각났다. 맨 처음 헌혈했을 때는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였다. 성분헌혈이 처음 도입되어 권유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다가 헌혈한 지 20분이 지나도 아직도 말았다는 얘기를 들으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지러워 중단하게 됐다. 이 일을 겪으며 헌혈이 만만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한참 동안 헌혈의 집을 방문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일본뇌염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작은 언니 집에서 숙박했다는 이유로 헌혈을 할 수 없었다. 동료의 지인이 백혈병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헌혈증을 기꺼이 기증하기도 했다. 그동안 헌혈과 관련해 미소 짓는 일도 있었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나의 첫 근무지는 내과병동이었다.

거기서 한 노부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셨고, 신입간호사인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 할머니는 내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간호사 생활을 잘 하라고 격려해주셨다. 지금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 생생히 기억난다. 남편에 대한 지극한 정성부터 인간에 대한 도리까지 모범을 보여주신 할머니의 격려는 나의 간호사 생활 내내 큰 울림이 되고 있다. 내가 하는 헌혈은 인간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착실하게 도리를 지키며 살고 싶다. 이 도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으리라 작은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1. 친구찾기 메뉴 고르기

상단 검색창 버튼클릭

2. '대한간호협회' 아이디 입력

아이디 입력란에 "대한간호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친구추가 완료

친구추가 버튼을 눌러 친구추가를 완료합니다.

카톡으로 소식받고 카톡으로 확인하자!
협회 소식이 여러분께 직접 찾아갑니다.

ID : 대한간호협회 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